

# 폐기할 타이어 6600개 빼돌려 불법 유통

### 광주 금호타이어 직원들 서류 위조 4년간 반출 21억 챙겨 택배 이용 장물업자·대리점 배송...광주경찰, 총 26명 적발

폐기해야 할 시험용 타이어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유통된 타이어만 6600여개, 21억원어치에 달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서류를 위조해 시험용 타이어 6600여개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계약직 운송직원 고모(2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선임연구원 박모(31)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26명 중 금호타이어 연구원과 직원은 13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장물업반

및 알선 업자 3명, 장물을 사들여 판매한 대리점 업자 10명이다.

고씨 등 금호타이어 운송직원 7명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 동안 6600여개의 시험용 타이어를 빼돌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타이어 대리점 업주들에게 팔아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 연구원 6명은 자신들의 명의로 작성된 지출증만 있으면 쉽게 시험용 타이어를 반출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억원 상당의 타이어를 무단 반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장 반출을 위해 지출증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마모도·주행테스트 등을 위해 곡성·용인 연구소에 보내는 것처럼 속여 시험용 타이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시험용 타이어는 택배운송업체 직원이 타이어 1개에 5000원을 받고 장물업자나 대리점에 배송했으며, 업주들은 시세의 절반 값에 구입해 정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되팔아왔다.

이들의 금융 계좌에서 확인된 돈만 21억원에 달했으며, 중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혹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험용 타이어 중 시험을 하지 않고 남은 타이어와 회전 저항 등의 시험을 마친 타이어는 옆 부분을 칼로 찢어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빼돌려 시중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타이어가 불법 반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또 타이어 관리를 비롯해 타이어 테스트부터 폐기 처리까지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일부 타이어가 불법 반출됐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출하 직전의 판매용 타이어를 시험용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불법 반출된 타이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제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으로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문제는 없다”며 “제품 출하 직전에 참고에 보관 중인 정구 양산품 중 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을 불법 유통해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교통약자에 힘든 전남 저상버스 보급률 등 저조 교통복지 평가 전국 7위

전남지역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통여건 탓에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힘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남은 저상버스 보급률, 보행자 사고율,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9개의 교통복지 지표 평가 결과 총 68점(100점 만점)을 얻어 7위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 10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은 경남(80.09)이었고 경기(75.1), 세종(74.1), 충북(73.5), 충남(72.4), 강원(71.7), 전남, 제주(67.1), 전북(61.1), 경북(57.8) 순이었다.

전남은 특히 교통복지 행정과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지표에서 10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보행 우선구역 지정, 교통약자 관련 조례 제정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행정을 게을리하고 장애인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차량) 확보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저상버스 보급률(일반버스 대비 저상버스),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등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도보, 자가용, 택시, 휠체어, 지하철, 특별교통수단, 무료셔틀, 기타 순이었다. 교통약자와 일반인 등 1310명을 대상으로 한 교통수단 만족도 평가에서는 항공기, 철도, 버스, 여객선 순으로, 여객시설 만족도 평가에서는 공항터미널, 철도역사, 버스정류장, 여객터미널 순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교통약자는 1298만5611명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내가 더 높게”...현수막 경쟁 치열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현수막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광주 남구 백운동 고가도로 인근에 중남갑 선거구의 총선 출마자들이 건물에 구조물까지 세워가며 자신들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일부에서는 임시 철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보복·난폭운전 한달새 24명 적발

경찰이 최근 한 달간 보복·난폭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에서만 24명이 적발돼 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 달간 보복·난폭운전자 24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23명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구속된 박모(38)씨는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직행버스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광주일보 3월16일자 6면)를 받고 있다.

적발된 24명 중 보복운전자는 13명, 난폭운전자는 11명이다. 난폭운전자 가운데 박씨는 구속과 함께 면허가 취소됐고, 나머지 10명은 벌점 40점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됐다.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돼 입건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입건된 24명은 모두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1명은 교통사고 21건, 법규위반 23건 등 무려 44건의 위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된 운전자 6명(25%)은 덤트럭, 택시, 택배차량 운전 등 운전업무 중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단순 추락 vs 고의 살인 ‘법정 공방’

### 광주지법 ‘모텔 추락사’ 첫 재판 검 “3D시뮬레이션 통해 검증” 변 “살인 실행행위 없어” 부인

‘단순 추락사인가, 고의 살인인가’ 여자친구를 모텔 창문 밖으로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의 의견을 들었고, 또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김씨와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와 이에 따른 실행 행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같이 지내던 여자친구 A(27)씨와 당일(모텔에서)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후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모텔 방 안 창문에 걸터앉았다. 당시 나는 3~4m

가량 떨어진 화장실 문 앞에 있었다. 여자친구가 ‘뛰어내릴 것’이라고 말한 뒤 바깥쪽으로 몸의 중심을 이동시켰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모텔 밖으로 나가 추락한 여자친구의 상태를 확인했다. 숨을 쉬고 있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을 여자친구에게로 안내했다. 겁이 나 구급차에는 동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수사검사는 “과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先) 현장 검증과 3D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숨진 A씨의 신체 손상 정도(방향·각도)와 초기 상황, 현장 조사, 과학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추락사가 아닌 고의로 밀어뜨린 살인으로 결론내렸다.

이처럼 김씨와 검찰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다, 김씨의 살인 혐의를 증명할 CCTV나 증인이 없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 현장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미 전범기업 변호 맡은 ‘김&장’ 빈축

〈국내 최대 로펌〉

###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허탈’

광주·전남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 ‘김&장’이 미쓰비시중공업측의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장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

양금액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지난 2012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고 일

부 소송판결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시민모임은 “국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17년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겨울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이 미쓰비시 측 변호를 맡게 된 것에 대해 허탈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장은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4건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3건의 사건을 비롯해 피고 측 대리인이 선임된 6건 중 4건을 맡고 있다”며 “국내 최대 로펌이 일제 전범기업 변호를 도맡아 시피하는 것이 과연 옹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교사·학생들 소화기 수십대 들고 학교 뒷산 불길 잡아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등이 학교 뒷산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 수십 대를 들고 뛰어가 불길을 초기에 진압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눈길.

○...16일 광주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께 광산구 임곡동 백우산 중턱에 산불이 난 것을 광일고 학생들이 하룻길에 발견해 소방서에 신고

하는 한편 교사, 직원 등 20여명이 소화기 15대를 들고 200m가량 뛰어가 큰 불길을 잡았다는 것.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속에 일어난 산불로 나무 수백 그루가 탈 수 있었지만 학생과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소나무 17그루가 불에 탄 것을 제외하면 큰 피해가 없었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행동을 칭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불변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윤택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개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